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7월 6일(금)

(음력 5월 23일)

Пятница

6 июля 2018 г.

№ 26(11679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올해 사할린주의 <학업에서 특별 우수성>메달 87명 받아

지난 5일(목) 오후 2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홀 공연장에서 사할린주 학교 우수 졸업생을 위한 <학업에서 특별 우수성>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올해 이 사할린의 특별 메달을 홈스크, 토마리, 티몹스코예, 비룻 12구역에서 온 학교 졸업생 87명이 받았다. 이는 3년 만의 최대 인원이다. 메달과 함께 졸업생들은 상장과 장려금 5만7500루블리를 받았다.

이날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은 학생, 선생과 학부모들을 환영했다.

메달리스트 중에는 한인동포학생들도 꽤 많았다.

김춘성 (알렉산드르)군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리체이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올해 그는 전국 문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과 김춘성 졸업생.

(이예식기자 촬영)

상반기 직거래시장에서 거래액 8억5천만 루블리

사할린의 식품시장에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0.76%로 나타났다. 극동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지수다.

아나톨리 마코예도브 주정부 부수상이 주재한 식품시장 모니터링에 관한 지역 감독 본부회의에서 이와 같은 정보가 발표되었다.

사할린 원산지 유제품으로 트보록, 스메타나, 버터를 비롯한 '프로다그로' 현지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돼지 지육의 가격은 하락했다. 올해 사할린에는 오이 풍작으로 오이 평균가격이 1키로에 100루블리, 토마토가1 키로에 130 루블리로 하락했다.

'오스트로브노이' 양계업체가 생산하는 개별 종 달걀 가격은 달걀10 알이 든 1곽에 1루블리 인상되었다. 상반기 사할린 양계업체들은 처음으로 영계의 가격을 1킬로에 155 - 157루블리까지 올렸다.

타지에서 수송되는 물품 중 곡물(메밀, 귀리, 통보리, 강낭콩, 완두콩)과 버터, 치즈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설탕 가격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산 버터의 가격은 상승했다. 농축산

부의 정보에 따르면 이는 현지생산업체의 발원 조건이 따라붙는 데 기인한다고 한다.

식품무역부 차관인 나탈리야 로자노바는 국가지원정책으로 사할린의 식품시장이 안정적인 단계에 자리잡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체와 농산물 대상에 지역차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제빵업체들을 포함해 식품생산업체를 향한 지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 덕에 서민적인 다양한 빵 가격은 안정적이다.

사할린에서는 서민적 주요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11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현지생산업체의 식품에 수수료가 붙지 않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1700회 이상 시장이 열린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시장 회전률에 따른 금액은 8억 5천만 루블리로 나타났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7월 2번째 일요일, 어부의 날 기념

7월의 두 번째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어부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 어부의 날은 7월 8일이다.

사할린주는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수산업의 전문가, 업체와 배데랑들을 축하했다. 현재 수산업 분야에서 1만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우수 근로자들을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수상이 환영하고 축하했다.

전통적으로 이 명절을 공연, 축제와 무료 우하(러시아식 생선탕)로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는 사할린 지역 여러 곳에서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내륙 간 철도교량 건설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열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 및 교통 제반시설 공사>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주제는 사할린섬과 내륙 간 교량 건설이다. 학술대회에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폴란드, 시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 100여 명이 참가했다.

논의는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섬의 기후와 불안정한 지반, 자연재해, 수력공학작업 등을 고려한 조건 속에서 섬과 내륙 간 철도교량 건설 및 설계를 위한 기술적 문제, 수력공학작업 해결을 다룬다. 포럼 참가자들 견해로는 섬과 내륙 간 연결을 세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노선이 형성되어 사할린이 지닌 교역력이 상승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국제학술단체 연구원들의 연합 및 면밀한 탐사가 선행되어야 함이 제안된 가운데 사할린과 내륙 간 연결 철도교량 건설 시행은 2021년부터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할린주, 가정과 아이들 지원에 50억 루블리 이상 지급

지난 6월 28일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간부 회의에서 엘레나 카시야노와 장관의 주재로 가정과 자녀들 지원에 관련 행사 실시를 논의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 실시에 59억 루블리 이상의 예산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작년 예산보다 23.5% 증가한 셈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5개월간 할당된 예산의 40%가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주 사회복지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 위탁으로 첫 아이 출산(또는 입양)과 관련 매월 보조금 지급, 인구통계학적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한 행사 실시, 가족수당 지급,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가구에는 주택 구입에 따른 일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내에서는 미성년 특별보호시설, 보육원 아동들에게 무료 휴식 및 건강회복을 위한 야영 또는 휴양소 입소권을 제공하고 있다.

주 사회복지부 갈리나 쇼코토와 가정정책부 부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원은 다자녀가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연송어1218톤 어획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은7월 3일 현재 연송어 어획량이 총 1218,619 톤에 달했다고 전했다.

주 수산청 정보에 따르면 전과 같이 송어잡이가 무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리 구역 업체들과 세웨로쿠릴스크구역 업체들이 조업에 나서 각각 232톤 가량을 어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라무쉬르 섬과 솜슈섬 해역에서는 1일 평균 어획량이 훨씬 많은 57톤까지 잡히기도 한다.

연송어 잡이에 2위로 많이 잡히는 것은 연어다. 연어는 현재 북 쿠릴에서 조업하여 어획량은 498,65 톤이고 네르카는 146,27톤에 달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필자는 헤가이 이리나 아나톨리에브나(1963년생)를 10년째 가까이 알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병원(현 주아동병원) 부원장이었고 <소망>아동창작협력회에서 활동하며 협력회가 운영하는 유아교실에서 강사로도 잠시 일했었다.

사실 필자와 이리나 아나톨리에브나와는 인연이 보다 더 깊었다. 1990년대에 필자가 신문사 주사로 타쉬켄트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포신문사에서 같은 성의 배 씨가 일하고 있는 것이 반갑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카가 살고 있다는 말도 적혀있었다. 그 조카가 바로 헤가이 이리나 아나톨리에브나였다. 그래서 한 번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이리나 아나톨리에브나가 상기시켰다.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가정·사랑 및 충성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 기사 주인공을 찾았을 때 연락처에 헤가이 이리나의 이름을 보고 '아,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어서 좋은 대상인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드렸다.

몇 년 전에 주보건부로 발령된 뒤 그녀는 현재 보건부 의료국 부국장이며 아동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부 부장이다. 그녀가 정한 인터뷰 장소는 사무실이었는데 약속시간은 아침 7시30부 터였다.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7시 30부터 9시까지라고 한다. 이때는 누구도 연락도 하지 않고 서류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을 위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 가족이 먼저다. 진심이다."

7월 8일 러시아아에서 가정·사랑 및 충성의 날 기념



이리나는 남편과 대학 시절에 만났다. 노워시비르스크국립의대 3학년인 그녀는 누군가와 같이 노워시비르스크 전기기술대학 기숙사로 갔었는데 계단에서 심재영(웁토르)군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연애까지는 3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후로 거의 만난 적이 없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제물라체스트워(다른 곳에 지내는 학생들의 민족 모임 또는 같은 고향인 모임)의 한 모임에서 만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몇 개월 후 결혼결심을 했다고 한다. 사실 이리나는 대학 6학년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더 빨랐다고 했다.

1980년대에는 청혼을 3개월 전에 해야만 결혼증서를 받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졸업시험을 다 마치고 결혼신청서를 작성하고 3개월 후, 1986년 9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리나는 켈라빈스크로 파견 결정이 나왔는데 파견 조건으로 그에게 숙박을 제공해야 했다. 기혼자에게는 1년 내에 주택을 제공해야 했는데 이 조

건이 해결되지 못해 이리나의 새로운 파견 장소는 남편 고향인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되었다. 남편보다 6개월 연상인 이리나는 혼자 사할린으로 가게 되었다. 신랑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개인사정으로 1년 휴학으로 인해 결혼 당시에는 5학년 졸업반이었다.

이리나는 낯선 사할린으로 혼자 가는 것이 한편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의 결혼 자체는 동화적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양쪽 부모가 이 젊은이들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신랑이 사할린 출신의 한인이고 신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다. 이리나는 학교 교사였던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니... 그때 이리나는 난생 처음 부모의 말을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3남매 중에서 맏이었던 이리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고 교사가 될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부모님이 교사직을 반대하자 부모님의 조언을 순순히 따랐다. 맏이로서 그녀는 책임감이 아주 컸다. 그녀가 5살 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거의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그녀는 스스로 한 살 아래의 여동생과 2살 반의 남동생을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보냈다. 타쉬켄트 외곽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은 아주 컸다고 한다. 이리나가 사할린으로 시집온 집도 개인집이었

다. 이 집은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한다.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은 노워시비르스크에서만 치렀다. 이리나의 부모는 결혼식에 왔었지만 시집 쪽에서는 남편의 형제들만 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서 그때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1987년 정월 초에 남편 고향에 도착한 이리나는 시어머니와 첫 인사를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어머니'란 말을 해야 한다.'고 마음 먹자 저절로 '마마' 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예의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안산으로 영주귀국 하기 전까지 13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은 4형제 중 막내였다. 그는 자기 형보다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리나는 한때 시어머니와 시숙을 모셨다.

사할린 생활도 잘 적응되고 의사 일도 재미있었는데 친척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리나는 자신의 친척 한 사람 없이 먼 사할린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큰 위로와 뒷받침이 되었다.

- 한번 노워시비르스크에서 대학 졸업논문 준비를 하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너 왜 목소리가 이렇게 슬프니?'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때 제가 임신 중이어서 임신부에 맞는 원피스를 구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 너무 많아서 주문하지 못했 다'고 했지. '알았다면서 내일 친구를 통해 남겨둔 책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마

쳤어요. 다음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 신과 비슷한 구두를 보고 '친구 왔구나'라고 문을 열더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 다.

전화를 하고 나서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4일 동안 남편은 임신부 원피스 2벌을 직접 재봉했단다. 워토르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집수리도 직접하고 여러 가지에도 솜씨가 있었다. 기술자로도 활동했었고 개인사업도 했었다.

이리나의 부모는 사할린에 딱 한번만 방문했었다. 2004년에 거의 3개월간 머물며 남편은 장모와 장인의 사위로서 진심으로 아내의 부모를 공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때부터 이리나의 부모는 온 마음으로 사할린의 사위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선량함으로 이리나의 마음을 잡은 워토르는 믿음직한 남자이고, 낙천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리나는 워토르에게서는 항상 우선적인 존재인 것 같다.

이리나의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고 말다툼 하는 모습을 아예 보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문제로 이 부부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보지 않은 다른 방으로 가서 불만을 대화로 푸는 것이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말문을 닫았을 때, 아빠가 담배를 계속, 굉장히 많이 피울 때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아서 혹시 제가 뭔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딸과 아들을 키울 때 부부는 평일에는 모든 가사를 다 해놓고 주말은 아이들과 보내기를 좋아했다. 항상 함께 산책을 하고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것이 전통이 되기도 했다. 시집가서 지금은 두 딸의 엄마인 31살의 딸과 아직 미혼인 아들은 주말에 한 번 꼭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가진다. 물론 다섯 살과 세 살의 손녀들도 반가이 할머니·할아버지댁을 찾아 매주 이틀씩 보내곤 한다고 한다.

'함께라면 극복할 고비가 있어도 지치지 않고, 겁도 나지 않으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부부는 생각한다.

최근에는 부부는 80을 넘기신 양가의 모친 생각을 자주 한다. 이리나의 어머니, 워토르의 어머니 - 두 분다 1934년 생이다. 한 분은 한국 안산,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살고 있어 이리나 부부는 거의 해마다 이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정이 많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3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이제 말을 안 해도 같은 태도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크다. 현재 이리나는 한때 병에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리나는 "가족을 위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저에게는 가장 우선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아그네보' 하천 역사에 대한 책, 사할린 주민들에게 소개하다

6월 29일 주향토박물관의 강의실에서 '아그네보(1883-1945)/ 고찰 자료' 저서 발표회가 있었다. 박물관장인 유리 알린은 박물관 직원들, 문화부 대표들과 사회단체 및 학술계 대표들, 향토역사학자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를 했다. 그는 매해 여름 빅토르 세글로브의 학술 발표는 좋은 관례가 되고 있고 사할린주 역사의 연구가 적은 부분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서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향토사학자 이고리 사마린과 역사학 준박사 마리나 그리자예와는 서평으로 새로이 학술적으로 알려진 출판물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출판물 편찬자인 빅토르 세글로브는(:역사학 석사, 조교수, 국립문화기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발전 및 과학연구소 부소장) 19세기 말- 21세기 초 시기의 발표물, 과학, 신문잡지의 기사, 통계자료, 보관기록자료를 근거로 하여 책을 편찬했다고 설명했다. 본 저서는 대조국전쟁 발발 마지막 해 전, 소비에트 시기, 유배시기, 유배 후기에 아그네보 강유역의 영토 개발과 관련된 자료와 문서들이 소개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들은 언급된 시기에 발전하고 있던 전국 및 지방 사회·경제·정치 과정과 상호연관된 사할린 북방 지역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본문에는 다량의 사진, 지도, 도표 등이 있고, 향토 박물관, 주 국립역사문서보관소, '체호브와 사할린' 역사문학 박물관 내의 소장된 원본들과 개인 수집 자료들이 첨가되어 있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ставили книгу, посвященную истории долины реки Агнево

29 июня в лекционном зале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Агнево (1883-1945). Материалы для размышлений".

Со вступительным словом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музей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учн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раеведам и журналистам обратился директор музея Юрий Али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каждое лето презентовать очередной научный труд Виктора Щеглова стал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и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это изд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малоизученной страниц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йдет своего читателя.

Рецензенты книги — историк-краевед Игорь Самарин и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арина Гридяева — кратко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ое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е издание.

Составитель издания —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и развитию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Виктор Щеглов — рассказал, что книга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 основе архивных дан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сведений, научных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статей и публикаций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I века. В издан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освоением территории бассейна реки Агнево в каторжный, посткаторжный и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ы до событий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дборка материалов позволяет осмыслить историю данного района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ее взаимосвязи с общероссийски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роцессами, развивавшимися в указанное время,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Дополнением к тексту служа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карты, схемы, оригиналы которых находятся в фондах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области,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го музея "А.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частных коллекциях.

<사할린주 민족총회>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사회원 행사장에서 '이주민 사회문화 적응에 따른 활동' 원탁 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원 회원이며 '사할린주 민족총회' 지역 사회단체 대표인 마야 키릴로바는 본 행사에 일련의 세미나를 각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외국 이주민법과 근로법, 법령 개정, 러시아 문화를 대하는 태도, 사회적, 의료적 혜택을 받을 기회, 교육,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진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지원을 가지고 교육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대대적 지원으로 <사할린주 민족총회>는 생활지침을 위한 소책자를 제작, <사할린> 이슬람 현지 종교단체와 함께 키르기즈어, 우즈베크어, 타지크어와 아제르바이잔어로 발간했다.

(8면에 계속)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 한자리에…

2018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에 250여 명 참가

현지 수업 시 활용 가능한 교수법 실습 및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 마련

7일, 교사 및 관리자와 함께 한글학교 발전 방향 논의하는

'한글학교 미래포럼' 첫 개최

전 세계 각지에 서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학교 운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한글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 연수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2018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전 세계 42개국 140명의 한글학교 현직 교사들이 참석하여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진행된다.

－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연령별 교수법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자료 작성,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설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소양 강화에 나선다.

－ 특히, 국내 학교에서 현재 활용되는 교수법을 체험해보는 한편,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수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도 학습할 예정이다.

한글학교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전 세계 41개국 한글학교 교장과 협의회장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분반 모임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 효율적인 한글학교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한인들의 뿌리교육에 대한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글학교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전 세계 250여명의 한



글학교 교장과 협의 회장, 교사들은 오는 7일(토) 서울대학교에서 '한글학교 미래포럼'을 열고 한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이상진 외교부 영사실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은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한글교육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글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민족의 뿌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서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는 한글학교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동포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남동구 사할린 어르신 효 음악회 '성황'

'제 3회 남동구 사할린 어르신을 위한 효(효) 음악회'가 지난 달 3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LH 인천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사할린 동포와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다사랑봉사회와 사랑나눔봉사단이 주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누리학교, 대한적십자사 인천 남동구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문화공연 직후엔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천일보)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대한민국 국민이란?－
2.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배경
3. 그들은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
4. 혈통주의와 과거국적주의란?
5. 돌아올 권리란?
6. 영주귀국자의 문제점
7. 재외동포법의 제정경위와 문제점
8. 현재 사할린 한인의 상태와 희망사항

한국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사할린 하늘로 날아가는 날(2018년 5월 19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하고도 70년이 넘도록 와보지 못한 감회의 무게가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사할린 하늘을 열심히 짚어보기도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6년여 만에 현지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열망을 실현한 것이다.

먼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할린에 계시는 한인과 그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개인자격으로, 더욱이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서야 다루게 된 죄송함과, 그나마 이러한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번 인터뷰(2018. 6. 1. 새고려신문)에서 밝힌 것처럼 필자가 이 문제를 접한 것은 2012년경 한 일본 책에서 박노학씨의 사건을 보면서 학자로서 이 문제를 한번은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성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던 것인데, 지난번 세미나(2018. 5. 21. 사할린 인문기술대학)에서의 사할린 동포들의 반응은 필자를 참 당혹하게 하였다. 자기 사연을 전해주는 분이나, 자기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마치 이러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처음 접하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지금이라도 와서 세미나 발표를 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글이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해볼까 한다.

이야기 시작을 무엇부터 할까 고민이 많았다. 사할린 한인이 사할린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먼저 다룰까하다가,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 먼저 이 문제부터 다루고, 그들이 왜 사할린으로 간 그 배경은 다음 순서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 연재는 8회 정도로 위 목차대로 풀어가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란?－

(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우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 이전에는 여전히 조선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을 일본이 합병 이후(1910년 8월 29일)로 칙령 제318호로 '한국의 국호를 지금부터 조선으로 한다'라고 하여 조선으로 국호를 개명하였으며,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까지는 미군의 군정시기였다. 이 시기를 '남조선과도정부'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시기적 문제로 누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해보도록 한다.

국적 관련 법조문
1. <u>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948. 5. 11.)</u>
제2조 제1호; <u>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u>
제5조; <u>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 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 국적을 소 급적으로 회복한다</u>
2. <u>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u>
제100조; <u>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u>
3.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신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997. 12. 13. 법률 5431호로 전문 개정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로 개정되었다.

위 조문에서 보다시피 1948년 5월 11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동 제5조에는 '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 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 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로 되어 있어 일본 호적을 취득하였던 조선인 일본 호적에서 이탈하면 자동으로 조선 국적으로 소급 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동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동시에 동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행법령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 제5조'는 제헌헌법 제3조인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어서 남조선과도정부 임시조례를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으로 제정하였는데, 동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로 갔던 모던 조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조선인이었으며, 다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복이 되고도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시 역사의 조난자로 남게된 것이다.

(2) 인간의 이동권

인간은 세계 어디든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두 선언문에서는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여 '돌아올 권리'의 적극적인 면과 이러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하는 소극적인 권리의 양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은 해방과 동시에 고국의 품으로 귀환할 수 없었다. 이들은 왜 고국에 즉각적인 귀환을 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하는 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국민의 요건과 인간의 이동권－이란 전제 조건을 기본으로 다음호에는 우선 사할린 한인 그들은 왜 사할린으로 가게되었으며, 광복과 동시에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을까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 이 글에 관하여 수정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분은 아래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hangun333@daum.net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планировала более 100 встреч на ВЭФ-2018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ассчитывает провести более 100 бизнес-встреч и подписать ряд соглашений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б этом журналистам рассказал ген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КОТРА) в странах СНГ Ким Джон Кён.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ланируют встречи в таких важных сферах, как совместное создание стартапов, робототехника и инновации в целом.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КОТР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суждает программу своего участия в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 Мы собрали около 120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и работаем с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о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олжно пригласить компани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 подчеркнул он. — По итогам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жидаем, что будут подписаны соглашения и меморандумы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им Джон Кён также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 В России работает около 150 компаний: 100 в Москве, 30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ещё около 20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и Владивостоке. А должно быть в 10-20 раз больше, — рассказал он. — Мы собираемся запустить организацию, котора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лаживать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Сейчас веду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ереговоры.

В этом год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а партн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выставки ИННОПРОМ,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с 9 по 12 июл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00 ведущих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рупного, а такж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сферах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и,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энергетики,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Doosan Infracore, PT Coupling, Hyundai Motor CIS, IR ROBOT, TaeguTec, Jungwoo Motor, Yongsung Electric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До конца 2018 года также должен пройти первы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является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на основана в 1962 году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Сегодня КОТРА имеет 126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в 86 странах мира, в том числе в России, где она име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татус торгового отдел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 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реклам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Кур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публикован сборник о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татью о том, как реализовывался этот проект.

ВМЕСТО ПРЕДИСЛОВИЯ.

Как задумывался 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Советское влияние на политиче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стоящий сборник подготовлен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Формат издания: специальный выпуск публикующегося с 1999 г. кафедрой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КГУ сборника «Проблемы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Он посвящен истории пребы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середине 1940-х — начале 1960-х гг.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ых туда совет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для помощи местным властям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егодня историки и политологи по-разному оценивают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особенно на фоне непрекращающегося соперничества и даже открытого проявления вражды между разделенными Севером и Югом некогда единой страны.

Такого рода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внести ясность в вопрос о степени советского влия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40-х — конце 1950-х гг.

Корейцы из числа граждан СССР, вначале военнопленные, посылались в Корею начиная с августа 1945 г. Затем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переводчики, обеспечивавшие потребности в контактах Совет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ГА) с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группы гражда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али отправляться с октября 1946 г. Это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управленцы, имевши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свободно говорившие как по-русски, так и по-корейски, с опытом руководящей работы, а такж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нженеры, медики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кандидатов отбор прошли далеко не все.

По разным данным, с 1945 по 1955 г.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аботало от 240 до 500 совет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заня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ажные должности в партийно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ппаратах, в хозяй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в арми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Важную роль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ыграли и в ход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г. Сегодня эта страница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как акт величайшей трагедии разделенного народа и ему можно давать самые разные оценки. Но, несомненно, этими людьми двигало осознани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мощи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бескорыстие и, может быть, в чем-то и наивность, за которую вскоре многим из них пришлось поплатиться.

В 1955 г. стала меняться политика большей части высш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этим людям,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продолжая оставаться гражданами СССР, достаточно критично относились к Ким Ир Сёну. Именно тогда в оборот был введен термин «чучхе», позднее обозначавший альтернативу другим моделям «реального социализма», что не могло не вызвать настороженность в Москв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остоялся XX съезд КПСС, опасения Ким Ир Сёна и его приближенных еще более усилились. Начались репре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недовольны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 попытки Москвы и союзного ей тогда Пекина переломить ситуацию в выгодную для себя сторону успехом не увенчались. Репрессии продолжались. П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погибли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из числа выходцев из СССР, другие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в лагеря для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ключенных. В качестве компромисса режим Ким Ир Сёна разрешил част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месте с семьями в конце 1950-начале 1960-х гг. покинуть КНДР и возвратиться в те республик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ткуда они были ранее командированы. Прежде всего, в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захстан, где многим из них пришлось заново строить свою жизнь и карьеру.

Сегодня никого из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тех событий уже нет в живых, но остались их дети, внуки, а теперь уже и правнуки. Многие бережно хранят домашние архивы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амых близких для себя людях, периодически встречаются по разным поводам, создают неформаль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И наш долг — оказать им посильную помощь в де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акты с потомкам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хочется, чтобы появились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с ними более тесных связей.

Настоящее издание подготовлено коллективом авторов,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как призн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так и молод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олько начинающие свой путь в науке.

Координаторы проекта перед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борника обратились через сайт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орё Сарам» и газету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с просьбой рассказать о нашем проекте и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сборе информации. Был также подготовлен специальны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буклет, в котором отражены основные сюжеты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нами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темы.

Статьи, помещенные в сборнике, являю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т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вела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на страница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бюллетеня «Единство», где периодически печатались биографические справки и статьи о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работавших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публично не выражавших критич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жиму Ким Ир Сён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биограф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основаны на двух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ах информ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материалы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личных дел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ставлявшихся в ЦК КПСС и ныне хранящихся в РГАСПИ. Кроме того, есть работы, построенные на изучении личных архивов потомков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вяза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в открытом доступе имеются не все их личные дела.

Фото- и фонодокументы, материалы «устной истории», а также текстовые записи из домашних архивов хотя и не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при работе историка, но выполняют важную роль, особенно в т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офици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как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так и не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не дают пол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ех или и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тех случаев,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человеческом измерении» в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народ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б истории появлен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студент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лько начинающих свой путь становления в качеств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стор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международников. Работа по изучению материалов и написанию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справок проводилась в первом семестре 2016/2017 учебного года по студентами магистратуры п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 профессор И.Н. Селиванов)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ктикума и студентами бакалавриата в рамк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научного общества «Клио»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 профессор И.А. Коноре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ы над еще несколькими биографиям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вших в КНДР в 1945-1961 гг. Планируется их публикация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настоящего сборника.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екта очень надеются, чт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студентам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ГУ материалы найду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клики,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источники информации и эта, на наш взгляд, очень нуж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Отдельные разделы первой части сборника составляют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с судьбам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отомкам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троили нов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едоставили материалы для настоящего издания: Афанасию Бонсиковичу Наму (Благовещенск), Роберту Вонгировичу Киму (Солнечногорск), Александру Ильичу Шину (Москва), Аркадию Дановичу Киму (Ташкент), Людмиле Ивановне Пак (Алматы), Юрию Ивановичу Паку (Москва), Виктории Бонсиковне Нам (Ташкент), Татьяне Ивановне Ан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Если у читателей имеются материалы по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тематике и кто-либо хотел 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должен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ждем откликов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о электронному адресу: istfakkgu@yandex.ru (с пометкой: «Для проект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КНДР"»).

Координаторы проекта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декан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К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А. Конорева**.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К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 Селиванов**.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 Нью-Йорке

В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 сентябре в Нью-Йорке, сообща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Axios. При этом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 убежд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торой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КНДР должн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одвижки в де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Между тем,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 Diplomat высказывает со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искренности Пхеньяна в вопро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журнал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СК продолжала производить мобильные пусковые установки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е дл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ред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Пуккыксон-2». Издание WallStreet Journal, между тем, указало, что высказываемы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дозр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СК являются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тог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не выполняет свои обещания. По этой теме высказался и бывший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Уильям Перри. В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журнале Politico,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 это шанс реши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НДР, появившийся впервые за 18 лет, и упустить его нельзя.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ША и страны региона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 диалог.

Завершился второй этап отбора кандида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стреч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определило 250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второго этапа отбора кандида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стреч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иуроченной ко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25 июня,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этапа методом жеребьевки, компьютер выбрал 500 кандидатов. Среди них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опрос о желан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трече и проверка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3 июл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мерена обменяться с Севером списками кандидатов, чтобы начать поиск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До 25 июля стороны должны обменяться результатами поисков. На их основе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по 100 человек от Юга и Севера. 4 августа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окончательные списки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Само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период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посетит КНДР 5-7 июля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отправится с визитом в Пхеньян 5 июля, сообщ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Белого дома Сара Сандерс.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Помпео встретит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и его командой», сообщив также о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важной работе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идут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и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наблюдается прогресс, добавила Сара Сандерс. 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е США уточнили, что визит Майкла Помпео в Пхеньян продлится с 5 по 7 июля, отметив, что его цель - продолж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8 июля Майкл Помпео прибудет в Токио, где встрети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К и Япони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итай проведут второ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РК и Китай проведут в конце июля второ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расширение рамок услуг и инвестиц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Первы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состоялся в марте. Соглашение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в декабре 2015 года.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выставка настольных игр Board Game Con-2018

7-8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KOEX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крупная выставка настольных игр Board Game Con-2018. Е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22 профильн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около 500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игр. Помимо выставки там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ютюб-блогерами, а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14 наименованиям игр. В этом году Board Game Con проводится в 14-й раз.

(RKI)

Истор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до сих пор уточняются

Германия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а страной, участвовавшей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и Южная Корея включила ее в список стран,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о время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еу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ризнало Германию шестым участнико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ддержки разрушенной войной Южной Кореи 64 года назад, подтвердив, что европейская страна оборудовала госпиталь в Пусане в мае 1954 года и оказывала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осле вспышки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1 страна направила свои контингенты в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ООН,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Южной Кореи в войне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держиваемой Китаем и бывшим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16 стран направили боевые части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четыре страны - Норвегия, Дания, Швеция и Индия - послали медицин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 Италия оборудовала госпиталь на Юге.

В мае 1953 года, за два месяца до перемирия, Германия уведомила ООН о своих намерениях оборудовать полевой госпиталь в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солдатам ООН, участвовавшим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ислала медицинский персонал в количестве 80 человек.

Но европейская страна не была включена в число оказывавших меди-

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поскольку работа госпиталя началась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27 июля 1953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заявило, что оно начало пересмотр статус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еще живущими членами герман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бригады и семьями умерших во время его визита в Берлин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тилось в 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с просьбой изучить участие Германии в оказа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оторая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с 1954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провело публичный семинар в Сеуле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мнения ученых и экспертов.

"Германия выразила намерение прислать медицин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во время войны, и ее целью было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вооруженным силам ООН. Кроме того, германский госпиталь действовал под флагом ООН. Эти факты были приняты во внимание при вынесении решения",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нести Германию в список оказавших медицинскую поддержку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свою Белую книгу 2018 года и сделать поправки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фициаль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ИА РУСКОР)

Семь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Семь горных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вошли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30 июня на 42-ой сессии комитета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в Манаме, Бахрей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йчас в списке знача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3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Семь новых объектов – это храмы Тхондоса в городе Я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усокса в городе 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ончжонса в городе Анд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опчуса в уезде Поы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Магокса в городе Кончжу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Сонамса в городе Сунчхон Чолла-Намдо и Тэханса в уезде Хэнам-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Комитет признал выдающуюся универсальную ценность храмов, которые сохраняют традицию корейского буддизма. Они были возведены в период с VII по IX век, являясь действующими объектами культа, где монахи живут и проводят ритуалы.

Храм Тхондоса был возведён в эпоху династии Силла в 643 году монахом Чачжаном. Он был построен для хранения таких реликвий, как частичка праха Будды, Каша из золотых нитей и буддийские сутры, которые монах привёз из Китая. Храм Пусокса был основан в 676 году монахом Ыйсаном после учёбы в Китае. Храм Пончжонса был, вероятно, основан в конце VII века Нынином, одним из десяти учеников монаха Ыйсана. Здесь расположено старейшее в Корее деревянное здание, которое называется Кыкнакчжон, имеющее статус на-



ционального сокровища 15. Храм Попчуса построен в 553 году монахом Ыйсином, который изложил сведения по географи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Тонгукёчжисынрам». Попчуса является хранилищем древних реликвий и сокровищ. Храм Магокса окружён горами и рекой. Существуют две версии основания этого храма. По одной версии монастырь был построен в VII веке монахом Чачжаном, а по другой версии – в IX веке монахом Чхэххином. Точное время основания храма Сонамса также не известно. Возможно, он возведён в 529 году монахом Адо, либо в 875 году монахом Тосоном. Храм Тэхынсан был,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троен в период Объединённого Силла.

(RKI)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04.2008 года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и избирательным объединениям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VII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9,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одном номере составит 954 кв. с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одном номере составит 954 кв. с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3816 кв. с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3816 кв. см.

Стоимость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для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редвыборных аги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VIII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9 составляет 90 руб. за 1 кв.см.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аги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первая и последняя полосы.

Оплата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 безналичной форме.

Сильные дожди в РК привели к жертвам

Сильнейшие дожди, вызванные влиянием тайфуна Prapiroon,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дни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К, привели к жертвам. 1 июля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сообщил, что в понедельник утром в уезде Посон-гун 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елевый поток смыл пожилую женщину.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больнице. 30 июня в уезде Ёнгван-гун той же провинции уроженку Таиланда, работавшую в поле, ударила молния. Пострадавшая скончалась в больнице. На побережье той же провинции и в уезде Со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от дождей пострадали семь человек.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страны повреждены или затоплены 66 домов, затоплены 4.528 гектар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угодий, под водой оказались 22 автомобиля. Временно закрыты пешие маршруты в 19 национальных парках.

(RKI)

Выделен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упная федеральная субсидия поможет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130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объекты транспорт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Всего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олучают в виде федеральной субсидии на крупные стройки 25,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правки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сразу в двух чтениях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ли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феде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порядилось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ить на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53,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суммы предназначе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сюда направят 13,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2019 – 6,8 миллиарда, а в 2020 – 4,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добрено 95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ее 130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В их числе - школы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уговое и Дальнее, а также в Ногликах, Корсакове, Смирных, Курильске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елах Кировское, Тунгор, Рейдово и Головнин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стройки появятся у гимназий №3 и №1, школы №6 и №26.

Сформирован обширный план и по развит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пример, новую больницу получит самый удаленный район области -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А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подобное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В сфере спор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озведение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ледовой аре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ккейного корта в Курильске и ряда комбинированных спортплощадок, установка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и освещения горнолыжной трассы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тадионов в Углегорске и Томари, а также «Космоса»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и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Смирных на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остроят пожарную часть, в Ильинском – котельную, 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лигон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дороги и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газифицироваться котельные.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работ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олнить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выполнил свое обещание и выдели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по сути, вернув ранее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ные в бюджет страны доходы от шельфов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Они помогут региону выполнить все ранее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мы смож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дорож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еще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арда –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граждан, а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еще 300 миллионов. Увеличиваются расходы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межбюджетные трансферты для районов. Конечно, такие решения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единогласным решением приняла поправки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итоги заседания в парламенте депутат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День молодёжи

Вместе с островитянами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молодежи людей праздновали известные артисты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КВНа 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шоу, подарив всем его участникам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Основные площадки праздника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десь провод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конкурсы,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беседы. Одной из ярких и веселых стала встреча с капитаном команды КВН «Город Пятигорск», участницей телешоу «Однажды в России», актрисой Ольгой Картунковой. Сахалинцы смогли задать ей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на память.

-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тёплая публика и душевный приём, а я не первый раз у вас в гостях,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 Сегодня увидела, как люди хотя не только что-то спросить у меня как у «смешной» женщины, но и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поделиться своей радостью и счастьем, проблемой или заботой. Эт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когда люди доверяют тебе, как старой знакомой.

На соседней площадке победитель шоу «Танцы. Битва сезонов» Антон Пануфник преподавал горожанам и гостя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ро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танца.

- Я старался, чтобы всё было доступно, понятно и ребята могли чему-то научиться. - сказал Антон. - Танец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самовыражение и главный акцент мною сделан на то, чтобы участники не стеснялись окружающих, были раскрепощёнными и любили т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Сахалинский модельер Дарья Гуляева провела подробный экскурс в мир моды и стил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А в зоне «Beauty wave»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го барбершопа творили бесплатно модные стрижки на голов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ильной половины человечества.

В центре площади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изобразили на асфальте, в честь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в России, огромный футбольный мяч. Все желающи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рядом с необычным арт-объекто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привлекли островные тяжелоатлет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е собравшимся молодецкую силу в поднятии штанги и гири разного веса.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этой «забаве», показывая на что они способны.

- Молодость не имеет границ, она дарит надежду на прекрасное будущее. Юные, дерзкие и полные энтузиазма люди всегда стремятся в своей жизни что-то изменить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День молодежи посвящен тем, в руках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будущее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поздравлении к собравшим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вечера площадь Ленин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Первыми на главную сцену вышли гости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музыканты группы «COSMO & SKORO», порадовавшие зрителей своей динамичной музыкой и мощной энергетикой. Далее эстафету приняли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В течение дня на площади работ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оны,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оиграть в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 попробовать удачу в лотерее. Обладатели счастливых билетов получали ценные призы и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аккордом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молодежи стал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140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движению Юнармия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ринесли торжественную клятву верности своему Отечеству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40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няв присягу, встали в ряды 200 тысяч юнармейцев из все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Сергей Урусов из Южно-Курильска, вместе со значком юнармейца,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младшего сержанта.

– Каждый год у нас в школе проходит конкурс «Строй и песня». Тем, кт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лучшую военную выучку, в том числе и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вступить в Юнарию. Быть юнармейцем – значит уважать окружающих людей, чтить тех, кто воевал, и никогда не предавать своих, – поделился 16-летний школьник.

В ря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Юнармии немало девушек. Анастасия Пеленкова из Холмска вступила в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через волонтерский клуб «Горячее сердце».

– Я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участвую в юнармейских сборах, мне вс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Я умею маршировать, стрелять, разбирать и собирать автомат. Мне кажется, такие умения полезны не только мальчикам, но и девочкам. А любовь к своей стране должна жить в сердце каждого, – считает десятиклассница.

Значки юнармейцев ребятам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 У вас впереди насыщенная юнармейская жизнь. Юнарм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параде Победы, в молодежных форумах и множестве акций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Уверен, вы будете достой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Помните, юнармеец –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Он готов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стоящее и за будущее своей Родины,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Напомним, Всероссийское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началось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штаб Юнармии вошел в тройку лучш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стране.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остаются стабильными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зменение цен происходит в пределах инфляции, которая составляет 100,76 процента.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мониторингу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ынков,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На островах снизились цены на местную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 творог, сметану,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а также свиные полутуши, производимые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ей «Продагро» Обильный урожай этого года позволил уменьшить среднюю стоим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огурцов до 10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и помидоров – до 130 рублей.

Незначительно – на один рубль за десяток - выросла цена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яиц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ой». Впервые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однял цену на бройлеры – со 155 до 157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находится в пределах инфляции.

Среди привозных товаров фиксируется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некоторые виды круп – гречку, овсянку, перловку, фасоль и горох, а также на импортное масло и сыр. Цена на сахар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величение цен произошло на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отеч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развитием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ому производителю,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али привози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имеющую более высокую стоимость.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бласти Наталии Розановой, стабильную ситуацию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помогают обеспечи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ы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ют на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та цен на рыбу и на товары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рег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хозяйствующим субъектам, поставляющим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ую не производят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предприятий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ключая хлебопекарные.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ые сорта хлеба остаются стабильными.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116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которые торгуют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Магазины со статусом социальных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заяв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ьзуется ярмарочная торговл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без наценки. В 2018 году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1700 ярмарок. Объем товарооборота на ярмарках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оставил более 8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бучение по н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й набор абитуриентов начинает отделение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дицине ни один диагноз не ставится без лаборатор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старший лаборант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30-лет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пытом Елена Вторина. - От специалиста требуется серьез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профилю, компьютерная грамотность, базовое владение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Професси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непростая. Н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хватает и в нашей больнице, и в регионе в целом.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у будущих выпускников не будет.

Открытие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базовом колледже отвечает задачам, 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властями всех уровней в своем Указ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мае 2018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частности, поручил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оказывающих первичную медико-с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а Сахалине в базов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выделили несколько помещений под новую аппаратуру,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мебель, которым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туденты н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купки стоимостью в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ка не распаковывают. Первым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пробуют участники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8 по 12 августа. В его рамках состоя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двум компетенциям сфе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Медицинский уход» и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оборудование остан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тогда уже им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туденты.

- С помощью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и наши юные земляки будут постигать тонкости профессии, у которой много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т забора крови, исследования биологических жидкостей, проведения гист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ысокоточных анализаторов,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Лариса Дзюва.

Приемная комисс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работает с 15 июня до 9 августа. Уже подано 65 заявлений.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Лаборатор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обучение на базе 11 классов продлится 2 года 10 месяцев.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не требуется, отбор - на основе конкурса аттестатов. Также ведется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Лечебное дело» (квалификации «Фельдшер») и «Сестринское дело» (квалификация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 각국 한국학자들, 러시아 카잔서 학술대회

한국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주제로 논의...월드컵 '한국 독일 전' 관람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 시 카잔연방대학교에서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으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는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가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했으며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체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 중인 외국인 학자와 한국인 학자 32명이 발표에 나섰다.

이번에 참가한 대학 및 학교는 한국외국어대, 신한대, 한양대, 이화여자대, 중국 길림대학교, 체코 팔라즈키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스리랑카 켈라니야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국립대, 카자흐스탄 알-파라비카자흐국립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언어대, 러시아 고등경제대, 카잔 연방대, 우랄연방대, 불고그라드국립사회-교육대, 바쉬키르국립대, 카잔 19 김나지아 등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카잔연방대학교 고영철 교수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들이 서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한국 그리고 아시아-유럽간 한국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학은 학문적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실히 정립돼 있지는 않지만, 주로 '한국에 관한 모든 사상을 연구대상으로 한국의 성격을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일컬어진다.

한국학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독립신문'1896년 5월 30일자 논설에 실린 '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일부터 먼저 알 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라'라는 기사내용이며, '황성신문' 1899년 1월 9일자



▲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 시 카잔연방대학교에서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발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

논설에는 외국학에 반대되는 '본국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있다.

현대 한국학 발전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명)이 문을 열면서 한국학 진흥의 역할을 담당했고, 해외 한국학 발전은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외국에서의 한국연구 지원 덕분에 분석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는 한국학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대학에서의 한국학의 학문적 범위는 한국역사, 문화, 문학, 경제, 국제관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시아, 유럽대학에서 점차 한국어학과를 기본으로 각 학문적 분야로 학과명이 변화 발전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과명이 한국사, 한국경제, 비즈니스 한국어, 국제관계한국전공으로 개설되고 있다.

둘째 한국어 관련 전공의 세계적 동향은 학문적 목적 보다는 직업교육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의 해외대학 정착기에는 한국어를 통해 통번역 가능여부와 일부 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문적 한국어 교육이 주요 목표였다면, 현재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취업을 위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에서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국립대학교 황 루드밀라 교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30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도 교재의 핵심 내용과 예문이 변화가 없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통일된 내용과 연령별 교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교과서의 예문에 한국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학술대회가 열린 카잔에서 6월 27일 오후 5시(현지시간)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예선 최종전, 한국과 독일과의 경기가 열린 카잔 아레나를 직접 찾아 한국대표팀을 힘차게 응원했으며, 극적인 2대0 승리에 모두 열싸 안고 기뻐했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의릉과 중정

서울은 의외의 부분에 서 복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그 흔 하던 관가(官家)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한옥이며, 초가며 흔적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옛것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발전의 어두운 측면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복춘 정도만 겨우 한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하지만 서울에는 동네마다 능이 있어서 옛 정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공원도 되고, 산책길도 되고, 아이들의 소풍, 현장학습의 장소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 사대문 밖에 있어서 지금 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외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는 능도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장산(天藏山) 주변은 왕릉의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이 여러 곳 있습니다. 흥릉과 의릉이 있고,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 씨의 묘인 회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와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능이 아니었다면 벌써 개발의 폭풍에 휘말렸을 동네가 능 덕분에 개발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이유로 능에는 의외의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가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해 버린 것이죠.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능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능에 가게 되면 한 번 찾아보세요. 흥릉과 광릉에는 수목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곳이 태릉이죠. 사람들은 태릉이 누구의 능인지는 모르는데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던 곳이라고는 금방 압니다. 태릉은 선수촌 외에도 스케이트장이나 놀이공원 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태릉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 때 아이들과 태릉에 가서 동물원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능 옆에 동물원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물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태릉에 사격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들려오는 총소리에 태릉에 잠드신 문정왕후는 제대로 잠을 이루었을까요? 지금은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 유산이 되어,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의릉에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이지만 예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천장산 자락에는 그래서인지 지금도 초소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찾아보지 않았으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은 뒤쪽에 있는 중앙정보부 때문에 높이에 제한을 받아서 오랫동안 완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박사 학위를 받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중앙정보부는 이전을 한 후였습니다.

의릉에 가 보면 지금도 뒤쪽에 중앙정보부 강당이 남아있어 을씨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중앙정보부에 집중되던 시절이고, 민주주의가 탄압을 받던 시절이었으니 중앙정보부는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강당은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명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7월 4일을 미국 독립기념일 정도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에게선 통일의 첫발을 떼게 했던 날입니다. 자주, 평화, 이념 초월의 원칙이 천명된 성명의 내용은 지금 봐도 훌륭합니다. 당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7월 4일도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바로 첫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관식에서 축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역사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부대찌개 — 햄, 소시지, 김치의 어울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만들어진 부대찌개는 슬픈 역사를 잊게 할 정도로 뛰어난 맛을자랑한다.

부대찌개는 한국전쟁 당시에 생긴 음식으로 역사가 짧다. 햄과 소시지, 미국식 콩 통조림 등에 김치, 고추장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부대찌개는 부대에서 군인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미군 부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다.



동서양 식문화의 조합으로 탄생한 부대찌개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미군부대 근처에서는 소시지와 햄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일명 '부대고기'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고추장을 풀고 김치를 넣어서 끓이면 느끼한 맛이 사라져 제법 먹을 만했다. 부대찌개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의 성을 따서 '존슨탕'이라고도 했다. 부대찌개는 얼큰한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음식이다. 햄과 소시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고기로 만들었지만 고기는 아닌' 맛에 흠뻑 빠져들었으나 반찬으로 먹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 고심 끝에 얼큰한 맛을 더해 만들어낸 것이 부대찌개인 것이다. 원래 부대찌개는 막걸리 안주였다고 한다. 전골판에 버터와 소시지, 햄, 양배추, 양파 등을넣고 볶아낸 안주였는데 여기에 고추장과 김치, 육수를 부어 끓여 먹게 되면서 지금의 부대찌개 맛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산물, 부대찌개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음식은 뭐니뭐니해도 부대찌개다. 햄과 소시지, 미국식 콩 통조림 등의 서양재료를 넣어 김치, 고추장과 함께 얼큰한 우리식의 찌개로 끓여낸 부대찌개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주둔하면서 소시지와 햄 등 일명 '부대고기'라는 식재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원조 부대찌개의 발상지는 미군부대로 상징되는 의정부 부대찌개집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지금의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가 만들어졌고,1998년 '의정부 명물찌개 거리'라는 정식명칭을 얻었다. 이제는 외국에까지 알려져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의정부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코리아넷〉에서)

